

- 본문 : 마태복음 6장 9~12절
- 제목 : “용서받는 삶 그리고 용서하는 삶”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0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의 거룩함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회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질수록 성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더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생생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만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해야 할 만큼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속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느라 몸부림치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별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고백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한 순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혹 당신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교훈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6:12)
2. 주기도문을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신자는 이미 칭의 되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13:10)
3. ‘성령이 내주하신 신자는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일1:10, 약4:17)
4.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일1:9, 시32:1~5)
5. 당신은 ‘죄의 자백’과 함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죄의 자백과 회개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목적이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죄책감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는 죄 때문에 피해를 보게 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가해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직 회개와 죄 고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해자에 대해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해자 편에서의 참된 회개와 피해자 편에서의 참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삶과 남을 용서하는 삶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다.

· 말씀기도제목

1.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죄 용서”가 있어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야 할 자들에게 용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3. 송원교회가 ‘가족초청주일 및 온~세대연합예배’에 불신 가족을 비롯한 태신자를 초청할 때 “용서받은 삶”으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